

두산로보틱스 주주를 위한 서한

두산로보틱스 / 두산밥캣
사업구조 개편 및 성장 전략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화

2024. 08. 04

DOOSAN
두산로보틱스

존경하는 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두산로보틱스 CEO, 류정훈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사의 이사회에서는 지난 7 월 11 일 두산에너지빌리티와의 분할합병 및 두산밥캣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의·발표하였습니다.

회사는 금번 통합을 통하여 두산밥캣과의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전년도 상장 시 계획한 사업 성장을 더욱 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기의 추진방안들과 관련하여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주주 여러분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금번 사업구조 개편의 목적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 드리고, 주주 여러분들의 흔들림 없는 성원과 지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산밥캣은 소형 건설기계 시장 글로벌 1 위 기업이고, 특히 로봇의 최대 시장인 북미/유럽 시장에서 압도적인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두산밥캣과 통합하는 경우에는 로봇 최대 시장에서 고객에 대한 접점이 현재 대비 약 30 배 이상 늘어나게 되어 지금까지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최고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로봇판매의 최대 수요 기회인 제조 물류 시장에서는 “두산밥캣”의 지게차 사업과 즉시 공동 판매 가능하여 큰 매출 상승의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 시장 규모 약 10 조 이상인 자율 주행 로봇 (Autonomous Mobile Robot)과 자율 주행 무인 지게차 (Automated Guided Forklift)에 공동으로 진출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창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로봇의 수요는 전통적인 공장에서 벗어나 전문 서비스 (특히 건설, 물류, 농업, 의료 등)로 확대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문서비스 시장에 특화된 (사람과 함께 협업하고 다양한

SW 기능이 탑재 가능한) 협동로봇의 강자인 두산로보틱스와 건설/물류/농업 분야에서 글로벌 최고의 업력을 갖춘 두산밥캣이 함께 결합했을 때 Incumbent leader 가 없는 최대 로봇 시장에서 단번에 압도적 리더로 도약하여 ABB, Fanuc 과 함께 글로벌 로봇 Top3 회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Organic 과 Inorganic 측면의 양사 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두산로보틱스는 IPO 시점에 목표한 3 년 뒤 매출 목표 대비 50%의 추가 성장을 목표로 하며, 5 년 내 매출 1 조원 이상의 회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의 현재 매출/이익 규모만을 근거로 당사 기업가치에 대한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주식 시장에서의 회사 가치는 과거/현재 실적 외 미래 잠재성, 기술력 등 다양한 근거에 기반하여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3 년간 매년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면서 연 평균 20%씩 성장하고 있으며, 증권사 또한 7/11 일 (이사회) 이전에도 목표주가로 112,000 원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거래소에서 형성된 당사의 주가는 회사가 공개하고 있는 투명한 기업정보 및 사업/시장 전망 등에 기초하여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의 독립적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가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사 경영진은 두산밥캣과의 통합을 위한 분할합병 및 주식교환이 정상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회사의 더 빠른 성장을 통해 당사 주주들의 이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님들의 많은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산로보틱스 대표이사 CEO, 류정훈

주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6 번길 79

031-5179-4753

<https://www.doosanrobotics.com>

DOOSAN
두산로보틱스